

합동차례 증가 新 명절 풍속도

전국 주요사찰 합동차례 매년 10% 늘어

“설 연휴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인사라도 직장생활을 하는데 명절 쇠는 것도 힘들고, 집안이 모두 불교다 보니 인근 사찰에서 차례를 지내고 바로 떠나려고요.”

결혼 3년차인 강 모(32)씨는 모처럼 직장에서 얻은 1주일간의 쉼 같은 설 연휴 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호주로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매년 지내왔던 차례는 아침 일찍 조상 위패를 모신 사찰에서 지내는 것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젊은세대의 맞벌이 문화와 명절을 여가생활로 즐기는 문화가 겹치며 사찰에서 차례를 지내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에서는 설 합동차례 참석인원이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다.

서울 조계사의 경우 설 합동차례 동참가정이 2012년 719가구에서 2013년 776가구, 2014년 847가구로 매년 증가했다. 강남의 대표사찰인 봉은사도 2012년 2253가구에서 2013년 2456가구, 2014년 2667가구로 증가했으며, 강북의 화계사도 2012년 245가구에서 2013년 265가구, 2014년 284가구로 증가했다.

봉은사의 경우 늘어난 합동차례 인원으로 2014년부터는 설 당일날 3차에 걸쳐 차례를 진행하고 있다. 봉은사 관계자는 “아침 일찍 지내는 1차 차례가 가장 인기가 높다”며 “저녁 올린 제수에 대한 선호도도 있었지만 차례 후에 곧 가족여행을 떠나는 가족들도 눈에 많이 띈다”고 말했다.

지역도 증가세, 귀향객 인기

지역에서는 서울과는 조금은 다른 이유로 설에서 지내는 합동차례가 인기다. 전북지역의 경우 완주 송광사는 스님들에게 세배를 올리고 함께 떡국을 먹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양 후에는 스님들과 함께 참석 가족들이 훗날이와 제기차기 등의 민속놀이를 즐기는 어울림 마당도 이어진다. 귀향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있어 완주에 위치해 있지만 지난 추석 때는 100여 명이 찾았다.

부산지역의 경우 삼광사는 2013년 극락전 불사 이후 설 합동차례 인원이 매년 40%가량 늘고 있다. 조상 위패를 모신 월할 개념이 강해 지며 귀향객들의 발길이 늘어났다. 삼광사 운영 주임은 “부모님들이 다니던 절이란 이유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는다. 위패를 모시고 합동차례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소외계층 돌봄도 필요

이러한 사찰 차례의 증가에도 우려의 목소리는 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단순히 사찰이 차례를 대행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어디까지나 불교적으로 조상과 가족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소외받는 이들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남권 대표사찰인 서울 국

“사찰에 차례 미루나”

경계·지역의 목소리
가족·소외계층 보듬는 새로운 문화 선도 주문

제선센터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2013년부터 영등포경찰서와 협의해 탈북자 가정을 대상으로 무료로 합동차례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선센터 김은옥 사무장은 “일반 불자들이 함께 차례를 지내기에 처음에는 혼선이 있었지만 취지에 공감한 불자들의 동참이 더욱 늘었다”며 “차례 후 모두 함께 공양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차례를 올린 탈북민들이 많은 위로가 됐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명절동안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사찰이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홍윤식 한국불교민속학회장은 “사찰은 민속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차례와 함께 통알과 성불도 놀이 등 불교 명절문화가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지친 교사들 산사서 쉬를 얻다

광주시교육청 산하 초·중등학교 담임교사 80명이 해남 미황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 교권보호지원센터는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두 차례로 나누어 해남 미황사에서 ‘에듀윌링(삶의 휴) 연수’를 진행했다. 교권 침해와 교직스트레스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치유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연수는 12일부터 이틀간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40명, 15일부터 이틀간 중학교 2학년 담임교사 4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주시교육청 산하 초·중등학교 담임교사 80명이 해남 미황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 교권보호지원센터는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두 차례로 나누어 해남 미황사에서 ‘에듀윌링(삶의 휴) 연수’를 진행했다. 교권 침해와 교직스트레스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치유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연수는 12일부터 이틀간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40명, 15일부터 이틀간 중학교 2학년 담임교사 4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승려복지’ 올해부터 본격 시행

조계종, 입원비 등 지원… 全 스님으로 확대

입원비·노인요양비부터 시작
건강보험·요양보험 4월 지원
국민연금은 2017년부터 시행
지속적 재정 확보 ‘당면 과제’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종단 핵심과제인 ‘승려복지’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조계종단 스님들은 올해부터 입원진료비와 노인장기요양급여비 등을 종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조계종은 지난해 11월 개정한 ‘승려복지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입원 진료비와 노인장기요양급여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한다. 개정 전 대상은 65세 이상 무소임·무소득 스님이었으나 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족계 수지 후 결계신고를 필한 모든 종단 스님에게로 수혜가 확대됐다. 지원 인원은 8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입원 진료비의 경우 연령 제한없이 ‘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중 선

백진료비를 합산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선택진료비 외 CT, MRI 등의 진단료나 상급병실료, 간병비, 한약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입원진료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 체납이 되지 않아야 한다.

노인장기요양급여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스님이 종단이 지정한 요양기관에 입원할 경우 요양급여 일부를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는 오는 4월부터 지원된다. 이에 따라 교구와 사찰은 소속 스님들을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 보험에 가입토록해야 한다.

현재 조계종 스님들의 국민건강 보험료 가입률은 95% 정도로, 이중 50~60%가 교구나 사찰에서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충분한 재정확보를 위해 2017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최저 부과 금액인 1인당 월 3만 6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종단 스님들의 국민연금 가입율은 18% 정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지만 승려복지 제도를 통한 지원으로 가입율을 높이고 노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지원 금액을 2017년 30%, 2018년 50%, 2019년 100%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승려복지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한 당면과제는 지속적인 예산 수급이다. 현재 승보공양 등을 통해 모은 승려복지기금은 20억 원 가량이다. 하지만 올해 예산에만 25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 박종학 사무국장은 “현재 그간 승보공양운동을 통해 정기적 후원자가 1500명에 이른다는 ‘승보공양운동’을 신행과 접목해 추진될 수 있도록 출가열반 주간과 백중 등에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그간 개별적으로 부담했던 입원진료비 등을 지원해 스님들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석을 마련했다”면서 “종단은 승려복지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연중기획 광복 70년 불교 70년 - ① 한국불교 종단 12·13

비구니 위상 증진 ‘싱크탱크’ 문 열다

전국비구니회 15일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 개원

비구니 승가의 위상 증진을 위한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가 문을 열었다. 전국비구니회는 1월 15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통사에서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 개원식을 개최했다.

원융화합을 통해 미래불교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구니승가연구소는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우스님을 당연직 소장으로 하고 총책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을 구성했다.

명우스님은 “50여 년 간 비구니 승가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를 개원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체계적이지 못했던 총책과 복지, 교육, 포교, 인적교류방안의 연구

에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현대사회에 부응하는 비구니승가의 책무와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평등과 상생의 시대를 새로이 열어가기 위해 비구니 승가의 성장을 바탕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진력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는 향후 실천적 종책연구를 포함하여 세계비구니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세계비구니대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비구니 승가의 특징을 극대화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포교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핵심 아젠다를 설정해서 연구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신성민 기자

선학원 자체 교육 추진… 독자 행보

이사회서 교육위 구성 결의, 석청 스님 감사 해임

재단법인 선학원이 자체 교육을 위한 교육위원회가 구성된다. 이에 따라 조계종의 법인 등록 추진을 반발해 빚어진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선학원(이사장 법진)은 1월 16일 서울 부암동 AW컨벤션센터에서 이사회를 열어 행사교육원 개성과 운영, 계산 설치를 위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사장 법진스님을 비롯해 12명 이사 전원과 감사 원명스님이 참석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위원 구성을 이사장과 총무·재무·교육이사에 위임키로 했다. 이에 대해 선학원은 “이른 시일 내 수계와 승가교육을 담당할 7~8인의 교육위원회가 출범할 전망”이라며 “재단사무처는 최근 교육과 관련된 교육자 및 피교육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확보해놓고 이를 중심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또 석청 스님의 감사직 및 정혜사 재산관리인 해임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석청스님에 대한 해임 조치는 수석사와 정암스님을 상대로 지난해 8월 제기한 소유권등기말소, 건물등도 등의 소송을 석청 스님이 재단 의사와 무관하게 1월 7일 취하한 데 따른 것이다. 석청 스님의 해임에 따른 후

임 감사에는 대전 심광사 주지 영은 스님을 선임했다.

한편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도당을 형성해 탈종을 기도했다’는 제소에 따라 선학원 이사 정덕·한복·현보 스님에게는 벌금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선학원 前 감사 석청 스님은 1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혜사·간월암 소송 취하 및 성보 불법매각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스님은 “정혜사와 간월암 민·형사 소송 취하는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며 “회유와 협박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혜사와 간월암에 대한 민·형사 소송은 내 뜻과 다르게 진행된 것”이라며 “선학원은 정혜사 재산관리인 내 이름으로 도장을 새겨 소송을 진행했고, 이와 관련한 내용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선학원 측은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 이른 시일 내 석청 스님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을 시사했다.

신성민 기자

사령

박아름
강정길
명) 수습기자 1월 26일

모집안내 한국불교연구원 열린유미선원 강직 및 수행결사

한국불교연구원은 보살되는 이치와 실천이 일상생활 속에서 구현되기를 서원하여, 수행의 교리를 익히고 실천수행의 체계를 체득하기 위하여 불교연구원은 교리연전의 전당으로, 열린유미선원은 실천수행의 도량으로, 전국 구도회는 보살행의 실천장소로 운영한다. 부처님담게 즐겁게 살아가는 법을 익히고, 계정에 삼학으로 대승보살도를 실천하는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게 한다. 올바른 신생활을 위해 실천하는 윤리인 행복론, 정학을 바르게 이해하여 실천하는 마음의 움직임인 유식, 생활의 지혜로 작용하는 중관으로 바른 보살도를 실천하게 한다.

◆ 열린유미선원 기초·전문과정 모집 (www.newbm.co.kr)

- 기 간 : 총 3년 (기초과정 2년, 전문과정 1년)
- 과 목 : 불교행복론, 유식, 중관, 어록 등 실천수행에 관한 기초 교리
- 시 간 : 오후반 (14:00~15:30, 90분) 저녁반 (19:00~20:30, 90분)
- 모 집 : 년 1회, 오후·저녁반 각 30명 (수강료 : 50만원, 분납 가능)
- 모집기간 : 2015년 1월 26일 ~ 2월 27일
- 접 수 처 : 한국불교연구원 불교연구실 (02-762-5624)
국민은행 474537-01-002428 (사)한국불교연구원(유미정사)
- 일 정

1학기		2학기	
3.4.5.6월	7월	8월	9.10.11.12월
불교 행복론	실참 (3박4일)	국내 문화탐방 (1박2일)	불교 행복론
근본불교			중관불교
부파불교			유식불교
			3년차:대승출가보살인증
			단기출가 (3박4일)
			1년차:심선계
			2년차:보살계
			4박5일)
			국외 문화탐방 (4박5일)

- 〈특징〉
- 실천수행에 필요한 교리를 아주 쉽고 편안하게 익힐 수 있도록 한다.
 - 계정에 삼학에서 출발하는 입문·교학·경론·실천의 4단계 과정으로 구성하고, 각 단계마다 전문인의 점검과정이 있다.
 - 삼귀의, 심선계, 보살계 등의 수계는 전통방식으로 한다.
 - 재가보살의 정신을 함양하는 단기출가와 대승출가보살계 수계를 두고 있다.
 - 모든 강의의 내용은 한국불교를 이해하여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열린유미선원 수행결사 모집 (www.newbm.co.kr)

- 재가자 결사 : 觀佛결사, 淨業결사
- 출가자 결사 : 觀經결사
- 자 격 : 재가자 (누구나 가능)
- 자 격 : 비구니
- 모집정원 : 각 20명 / 참가비 : 30만원
- 모집정원 : 각 10명(산철) / 참가비 : 없음
- 모집기간 : 차후 공고 (7월 예정)
- 모집기간 : 차후공고 (9월 예정)
- 결 사 : 2015년 8월 14일부터 (예정)
- 결 사 : 2015년 10월 12일부터 (예정)
- 접 수 처 : 한국불교연구원 열린유미선원 중무소 (031-761-6169)
국민은행 474537-01-002428 (사)한국불교연구원(유미정사)
- 일 정

연도	2014년										2015년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음력	동안거										하안거																													
	10.15 (결제)	안거중									1.15 (해제)	(산철)									4.15 (결제)	안거중									7.15 (해제)	(산철)								
양력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관불	관경									정업	관경															

- 〈특징〉
- 재가자 수행결사는 4박 5일간 결사의 내용에 따라 진행된다.
 - 출가자 수행결사는 14박 15일간 산철에 행하며, 경론 강독을 집중으로 한다.
 - 결사의 내용, 순서, 단계 등은 경전과 문헌에 근거한다.
 - 열린유미선원의 청구에 따라 수행한다.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원장·열린유미선원장